



- ✓ 2013 년부터 시작된 중국 조선 및 해운업 구조조정의 일환
- ✓ 이미 진행된 중국 철강업 구조조정의 효과와 비교해 봐야 함

Issue Comment

중국 국영기업들은 지금 M&A 중

지난 3월 말 중국 1, 2위 조선사인 CSIC 와 CSSC 가 합병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는데, 최근 중국 국영 해운사인 Cosco 가 또 다른 해운사인 LES를 인수한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사실 두 뉴스는 모두 중국의 조선업 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이다. 중국은 지난 2013년 이래로 조선 및 해운 사업 구조조정에 진입하며 Cosco 와 CSCL 산하 조선소 11 개를 통폐합하고, CSIC 산하 조선소 6개도 3 개로 통폐합하며 덩치를 키워왔다. 이는 국영 기업들 중 상위사들을 중심으로 힘을 실어주고,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무역 인프라 확대를 위한 M&A를 장려하는 현재 중국 정부의 기조와 맞닿아 있다. 무분별한 M&A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난립 해있는 조선사와 해운사를 정리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폐합이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정책은 중국 조선소의 경쟁력을 높여준다. 중국 조선사의 후방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철강사들의 지난 수년간의 통폐합이 결국 철강 시황과 철강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 효과를 보여줬듯이 중국 조선 및 해운업계의 통폐합 바람이 가져다 줄 영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 국영 해운사도 M&A 를 추진중임

Cosco targets LES deal as Beijing gives blessing to takeover drive

Power giant Huaneng Group is negotiating with China Cosco Shipping to sell in-house bulker owner Leading Energy Shipping (LES), also known as Ruining Shipping, sources briefed on the discussions say. Talks are expected to be lengthy, but such a move, if it succeeds, would see one of China's more commercially orientated state-controlled shipowners disappear into subsidiary China Cosco Bulk's fleet of 272 vessels. It would also follow the current Communist Party blueprint for state enterprise investment in two ways.

Firstly, Communist Party policy encourages the strengthening of state players in strategic sectors under the lead of a single large player. Secondly, the Communist Party also gives its blessing to mergers and acquisitions that can help further president Xi Jinping's strategic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which promotes trade infrastructure projects.

2018. 05. 17. TradeWinds

자료: TradeWinds, SK 증권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 단계 (6 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